

AI 시대 인간 번역의 의미와 창조 개념의 문화번역 —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 『고신성경(古新聖經)』 창세기 주석을 중심으로

소은희 숙명여대 교수

본 발표는 AI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인간 언어와 의미 생성의 문제를 19세기 중국어 성경 번역 자료인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의 『고신성경(古新聖經)』 창세기 주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고신성경(古新聖經)』은 창세기를 단순한 연속적 서술 구조로 제시하지 않고 『化成之經』과 『造成經』이라는 독특한 제목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편집상의 차이를 넘어 창조와 인간 역사에 대한 번역자의 신학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고신성경(古新聖經)』 전체 창세기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창세기 제1장에 나타난 『化成』 개념과 관련된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창세기 제1장은 하나님과 창조, 우주 질서 및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 개념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으로, 이후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陡斯』, 『化成』 및 『一性三位』 개념의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학 개념이 중국어 문화권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생성형 AI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언어 생성과 번역 수행이 가능해졌지만, 언어 생성이 곧 의미 이해와 존재 해석을 포함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인문학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인간의 번역 행위는 단순한 정보 변환이 아니라 역사·문화·세계관 및 실존 경험과 결합된 해석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성경 번역은 창조·인간·구원과 같은 개념들을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신앙 언어와 같은 실존적 표현은 단순한 개념 설명을 넘어 인간의 체험과 증언의 차원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종교 용어가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회복, 치유 및 삶의 변화와 결합된 실존적 의미를 내포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서 획득한 의미를 언어화하여 타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삶과 존재의 의미를 해석하는 행위와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AI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언어를 생성할 수 있을지라도, 인간처럼 삶의 변화와 실존적 체험 속에서 그 의미를 살아내고 증언하는 주체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인간의 번역과 언어 행위는 단순한 정보 처리나 언어 대응의 차원을 넘어 삶과 존재의 의미를 해석하고 증언하는 해석학적·인문학적 실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표는 『고신성경(古新聖經)』 창세기 주석에 나타난 신학 개념의 번역 양상을 통해 번역이 단순한 언어적 대응을 넘어 서로 다른 세계관 사이에서 의미를 조정하고 재구성하는 해석학적 실천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AI 시대 인간 번역의 본질적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저자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와 『고신성경(古新聖經)』의 번역 배경

2.1.1 賀清泰의 생애와 번역 활동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 1735-1813)는 프랑스 로렌(Lorraine)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이다. 그는 1756년 예수회에 입회하여 파렌제에서 신학 교육을 받았으며, 1770년 중국 선교를 위해 파견되어 광저우를 거쳐 이듬해 베이징에 들어갔다. 이후 사망할 때까지 약 42년 동안 베이징에 머물며 궁중 활동과 선교, 번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2.1.2 『고신성경(古新聖經)』의 성립과 번역 특징

『고신성경(古新聖經)』은 청나라 가경(嘉慶) 시기인 1803년경 賀清泰가 제롬(Jerome)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Vulgata)』을 저본으로 하여 북경관화로 번역한 중국어 성경이다. 이 역본은 현존하는 중국어 성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북경관화 성경으로 평가되며, 초기 중국어 성경 번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 역본은 J.S. Burdon(包爾滕), J. Edkins(艾約瑟), S.J. Schereschewsky(施約瑟), H. Blodget(白漢理), W.A.P. Martin(丁韪良) 등이 번역·수정한 『북경관화역본』보다 약 70년 앞선 시기에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언어사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고신성경(古新聖經)』은 19세기 초 북방관화의 언어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고신성경(古新聖經)』은 기존 성경 번역본과 구별되는 독특한 번역 형식을 보여준다. 성경 본문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백화체로 번역되었으며, 본문 뒤에는 주석과 해설을 첨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문과 주석의 병행 방식은 단순한 번역 기능을 넘어 해석과 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번역학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신성경(古新聖經)』은 현존하는 중국어 성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북경관화 성경일 뿐 아니라, 성경 본문에 서문과 주석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춘 초기 중국어 성경 번역본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신성경·서(古新聖經·序)』와 『고신성경·재서(古新聖經·再序)』는 현존하는 중국어 성경 번역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성경 서문 자료로 평가되

며, 각 경문 뒤에 첨부된 상세한 주석은 독자의 이해와 신앙적 수용을 고려한 설명 전략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성경 번역을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 해석과 교육이 결합된 실천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고신성경(古新聖經)』은 비록 당대에 정식 출판되지는 못하였으나 필사본 형태로 보존·전승되면서 후대 중국어 성경 번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王碩豐(2017)은 현재 중국어권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고성경(思高聖經)』의 번역 작업을 시작한 프란치스코회 선교사 가브리엘 알레그라 신부(雷永明, Rev. Gabriele Maria Allegra O.F.M., 1907-1976)가 북경 북당(北堂) 도서관에서 賀清泰의 『고신성경(古新聖經)』을 발견한 후 이를 촬영·정리하여 번역 작업에 참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고신성경(古新聖經)』이 후대 천주교 성경 번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신성경』은 비록 당대에 정식 출판되지는 못하였으나, 필사본 형태로 보존·전승되면서 후대까지 이어졌다. 이후 徐家彙藏書樓에 소장된 清代 필사본을 바탕으로, 2014년 中華書局은 李爽學과 鄭海娟 주편의 『古新聖經殘稿』를 출판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판본을 저본으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신성경(古新聖經)』은 단순한 초기 중국어 성경 번역 자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성경 번역사와 중서 문화 교류사, 나아가 중국어 발전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학술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2.2 『고신성경(古新聖經)』의 번역 환경과 문화적 배경

2.2.1 청대 금교 정책과 번역 환경

18세기 이후 청 조정은 천주교를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질서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 의례 논쟁 이후 교황청과 청 조정 사이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천주교에 대한 국가적 통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雍正元年(1724)에 시행된 금교 정책은 천주교를 국가 통치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래 사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乾隆帝와 嘉慶帝 시기를 거치면서 종교 활동과 출판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적 환경은 종교 문헌의 간행과 유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초기 중국어 성경 번역은 단순히 서양 종교 문헌을 중국어로 옮기는 언어적 작업에 그치지 않았으며, 정치적 제약과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종교 개념의 전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가 되었다.

특히 嘉慶十年四月十八日(1805년 5월 16일), 청 정부는 “提督衙門等將坊肆西洋人私刊書籍一體查銷”, “嚴禁西洋人刊書傳教”라는 칙령을 반포하여 서양인이 사적으로 간행한 서적을 조사 폐기하도록 하고 출판 및 전도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선교사들의 종교 활동뿐 아니라 성경 번역과 출판에도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賀淸泰는 1803년 바티칸 전교부에 『고신성경(古新聖經)』의 출판 허가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교황청은 그의 번역 작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공개 출판은 허가하지 않았다. 비록 『고신성경(古新聖經)』은 당시 정식으로 간행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번역 작업은 이후 중국어 성경 번역의 발전과 초기 중국어 성경 형성 과정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2.2 주석 문체와 설명 전략

『고신성경(古新聖經)』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본문과 주석을 병행하는 서술 방식에 있다. 특히 『고신성경·서』(古新聖經·序)와 『고신성경·재서』(古新聖經·再序)는 현존하는 중국어 성경 번역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어 성경 번역 서문으로 평가되며, 번역 목적과 원칙, 그리고 성경 이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신성경·서』에서 賀淸泰는 자신의 중국어 성경 번역 특징을 설명하면서, 성경 원문은 “큰 글자”로 제시하고 주석과 해설은 “작은 글자(小字)”로 첨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큰 글자는 『성경』의 본문이고 작은 글자는 부득이하게 첨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작은 글자를 첨가하지 않으면 중국어로는 성경의 본의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석은 성경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설명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賀淸泰는 성경 본문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본문 뒤에 비교적 상세한 설명과 해설을 첨가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단순한 주석 기능을 넘어 새로운 종교 개념을 문화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陡斯』와 『一性三位』와 같은 개념은 직접적인 교리 설명보다 서술적 설명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설명 중심의 주석 문체는 단순한 해설 전략을 넘어 당시 정치적·문화적 제약 속에서 새로운 종교 개념을 보다 수용 가능하게 전달하기 위한 번역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3 중서 문화 접촉과 북경관화의 수용

『고신성경(古新聖經)』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 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체계와 사상 체계 사이의 접촉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의 성격을 지닌다. 당시 서양의 기독교 개념은 중국 전통 사상 체계 내에서 직접 대응되는 개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번역자는 단순한 문자 대응이 아니라 개념의 재해석과 문화적 조정 과정을 수행해야 했다.

특히 賀淸泰는 당시 일상적 의사소통 언어로 사용되던 북경관화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계층의 독자들이 성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문언문 중심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백화체와 설명 중심의 문체를 채택한 점은 종교 지식의 전달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방식은 단순한 성경 번역의 차원을 넘어, 서양 종교 개념이 중국 언어 체계 안에서 수용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고신성경(古新聖經)』은 19세기 초 북경관화의 언어 특징과 중서 문화 접촉의 양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2.3 『고신성경(古新聖經)』 창세기의 구성과 신학적 의미

『고신성경(古新聖經)』은 창세기를 단순한 연속적 서술 구조로 제시하지 않고 독특한 제목 체계를 사용하였다. 즉 창세기 제1장-25장은 「化成之經」, 제26장-50장은 「造成經」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장절 분류를 넘어,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행위와 인간 역사 전개를 서로 다른 신학적 범주로 인식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化成」은 일반적인 생성이나 변화의 의미를 넘어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造成」은 이미 창조된 세계 안에서 인간 역사와 족장 이야기, 그리고 인간 공동체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化成」이 하나님의 창조(creation)를 나타낸다면, 「造成」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providence)와 구속사(redemptive history)가 전개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化成」이 무(無)로부터 존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행위를 강조한다면, 「造成」은 이미 창조된 세계 안에서 인간 역사와 언약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신성경(古新聖經)』에서 창세기를 「化成之經」과 「造成經」으로 구분한 방식은 단순한 편집상의 차이를 넘어 창조와 인간 역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반영한 개념적 구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한 절대적 창조와 역사 속 인간 공동체 형성 과정을 구별하려는 번역자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구분 가운데 특히 창세기 제1장에 나타난 「化成」 개념과 관련된 주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창세기 제1장은 하나님과 창조, 우주 질서 및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 개념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며, 이후 전개되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化成」에 나타난 창조 개념의 번역과 문화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한다.

3. 창조 및 신 개념의 문화번역과 재구성

3.1 「陡斯」와 절대 존재 개념의 재구성

『고신성경(古新聖經)』 창세기 1장 註(注)解①에서는 “Deu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陡斯』這句話也不是人性,也不是人名,是一句西洋古話,為的是指示天主高貴無比,純神聖性,無限量的才德(德)。一說『陡斯』這句話,人就懂得是我們所說的那尊貴無比的神,是永遠(遠)常有的,是自然而然 自有的,也不能沒有的,永活不能死。各樣體面、光榮、萬福、萬樂,都是『陡斯』本性自有的,恒(恆)定不移,些須(須)動變、憂愁都不能受,全包各樣美德,一分不能添,一分不能減;無所不在,內裡的、外面的、顯(顯)露的、隱(隱)藏的,一一都明鑒,或過去、或未來,如現在的一樣,看的明白;以全能全智,從無而化成天地、神人、萬物,又時時刻刻保存掌管。真天下萬民第一尊高至極威嚴大主!”

(『陡斯』라는 이 말은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도 아니다. 서양의 옛 말 한 구절로서, 천주가 지극히 고귀하고 비할 데 없으며, 순전한 신성(神性)을 지니고 무한한 재능과 덕(德)을 지녔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陡斯』라는 이 말을 말하면, 사람은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지극히 존귀한 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는 영원히 항상 존재하는 분이며,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하는 분이고, 또한 없어질 수 없는 분이며, 영원히 살아 있어 죽을 수 없다. 온갖 체면과 영광과 만복과 만락은 모두 『陡斯』의 본성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며, 항상 정해져 변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변하는 것이 없고, 근심이나 걱정 같은 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미덕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한 분도(조금도) 더할 수 없고 한 분도(조금도) 덜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어디에나 존재하며,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까지 하나하나 모두 밝게 살펴본다. 혹 과거이든 혹 미래이든 마치 현재와 같은 것처럼 분명하게 본다. 전능과 전지로써, 무에서 천지와 신과 사람과 만물을 만들어 내었고, 또 언제나 시시각각 그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린다. 참으로 천하 만민 가운데 가장 높고 지극히 존귀하며 지극히 위엄 있는 큰 주인(큰 주님이시다)이다.(참으로 천하 만민 가운데 가장 높고 지극히 존귀하며 지극히 위엄 있는 대주재이시다.)

초기 중국어 성경 번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의 신 개념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고신성경(古新聖經)』 주석에서 사용된 『陡斯』는 단순한 신명(神名)의 번역이 아니라 절대 존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문화 번역 전략을 보여준다.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 『고신성경(古新聖經)』 주석에서는 『陡斯』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음역어 설명이 아니라 천주교 신학과 존재론적 사유에 포함된 핵심 개념을 중국어 표현 체계 안에서 재구성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陡斯』는 단순한 신명(神名)의 번역을 넘어, 창조·보존·통치의 속성을 지닌 절대자 개념을 중국 문화와 언어 체계 속에서 재구성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 「化成」과 창조 개념의 문화적 재구성

『고신성경(古新聖經)』에서 사용된 「化成」은 일반적인 생성이나 변화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번역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고신성경(古新聖經)』 창세기 1장 註(注)解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以全能全智，從無而化成天地、神人、萬物」

여기에서 「化成」은 단순한 자연적 생성이나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에 의한 절대적 창조 행위를 나타낸다. 특히 「從無而化成」이라는 표현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변형이나 결합이 아니라, 무(無)로부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전통 사상에서 「化」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변화와 생성, 또는 만물의 점진적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독교의 창조 개념인 는하나님이선재하는물질없이자신의절대적의지와능력에의해만물을창조하였다는의미를포함한다. 따라서 賀清泰는 「化」라는 기존 중국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成」을 결합한 「化成」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독교적 창조 개념을 중국어 언어 체계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化成」은 단순한 어휘 선택을 넘어, 창조 개념을 중국 문화권 안에서 이해 가능하게 재구성하려는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3.3 「一性三位」와 삼위일체 개념의 재구성

『고신성경(古新聖經)』 창세기 1장 註(注)解 ④에 삼위일체 「一性三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陡斯有性有位——性不過一性，但位是三位。頭一位名聖父，第二位名聖子，第三位名聖神。這三位裡頭，並無先後大小的分別。三位是一樣貴，一樣大，自永遠有的。三位論位，彼此真正有分別；論性，沒有分別。所以說，陡斯單單只有一個，不能說有兩個、有三個。這個道理狠深奧，狠奇妙，遠遠超過我們人的聰明。但既然天主特特默(默)啟我們，耶穌又親口告訴我們，我們在世堅堅固固信服就殼了。我們要到天堂見了陡斯，終(纔)能〔清〕〔明〕白懂得陡斯一性三位的奧妙。一懂得了這個道理，解說《聖經》的話就不難了。比如這一篇經說的「陡斯的聖神」，就是我們剛纔說的陡斯第三位；又說「陡斯的聖神在水面上行」，這句話不是〔指〕聖神本來從這裡到那裡行，〔因他〕處處都在，不能挪移，〔而〕是一個比喻，因為有時在這裡顯揚他的全能、做聖跡，有時在那裡顯他的全能、作聖跡，所以說得陡斯的聖神從這裡到那裡，但不過是說法，不過說聖神賦給水能，能生飛禽、魚等類，比方母雞未覆抱之先，往來飛騰，一覆抱卵，用己溫暖(暖)，使出小雞。”

(陡斯에게는 본성도 있고 위격도 있다. 본성은 하나의 본성일 뿐이지만, 위격은 세 위격이다.

첫째 위격의 이름은 성부이고, 둘째 위격의 이름은 성자이며, 셋째 위격의 이름은 성신이다. 이 세 위격 안에는 선후나 크고 작음의 구별이 전혀 없다. 세 위격은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이 크며, 영원부터 존재해 온 것이다. 세 위격을 위격의 측면에서 말하면 서로 참으로 구별이 있지만, 본성의 측면에서 말하면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陡斯는 단지 하나일 뿐이며, 두 개나 세 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도리는 매우 깊고 매우 기묘하여, 멀리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나. 그러나 천주께서 특별히 묵시로 우리에게 알려 주셨고,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굳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陡斯를 뵈게 되면, 그때에야 비로소 陡斯의 한 본성 세 위격의 오묘함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 도리를 한 번 깨닫게 되면 《聖經》의 말씀을 풀이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陡斯의 성신(聖神)」은 곧 우리가 방금 말한 陡斯의 제3위(第三位)를 가리킨다. 또 「陡斯의 성신이 물 위를 운행하였다」고 말한 이 구절은, 성신이 본래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옮겨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여기에서 그의 전능을 나타내어 성적(聖跡)을 행하고, 어떤 때에는 저기에서 그의 전능을 나타내어 성적을 행하기 때문에, 성신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만 표현 방식일 뿐이다. 이는 성신이 물에 능력을 부여하여 날짐승과 물고기 등의 생물이 생겨나게 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암탉이 아직 알을 품기 전에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한 번 알을 품게 되면 자신의 따뜻함으로 알을 덥혀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과 같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개념이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권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고신성경(古新聖經)』은 이를 「一性三位」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一性」은 하나님 본질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의미하며, 「三位」는 성부·성자·성신이라는 세 위격의 구별을 나타낸다. 이는 단순히 교리 내용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 신학의 핵심 개념인 본질(essence)과 위격(person)의 관계를 중국어 문화권 안에서 이해 가능한 구조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賀清泰는 추상적인 교리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陡斯의 성신이 물 위를 운행하였다」는 표현을 해석하면서 성령의 창조 사역을 비유적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성신이 실제로 공간을 이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는 분임을 설명하면서, 「물 위를 운행하였다」는 표현을 성령의 창조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비유로 이해하였다. 특히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비유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작용을 중국 독자들이 일상적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단순한 교리 전달을 넘어 추상적인 신학 개념을 구체적 경험 세계와 연결하

려는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 전략을 보여준다. 따라서 「一性三位」는 단순한 삼위일체 교리의 번역이 아니라, 기독교 존재론과 신학적 개념을 중국어 문화 체계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존재 의미와 세계관을 새롭게 조직하는 해석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생성형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를 생성할 수 있을지라도, 창조·존재·초월과 같은 개념을 인간의 문화적·실존적 경험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4. 나오는 말

본 발표는 AI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인간 언어와 의미 생성의 문제를 초기 중국어 성경 번역 자료인 『고신성경(古新聖經)』 창세기 주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청대 금교 정책이라는 역사적 환경과 번역 배경을 검토하고, 「陡斯」, 「化成」 및 「一性三位」 개념에 나타난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신성경(古新聖經)』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대응이나 개별 어휘의 치환을 넘어 기독교 신학 개념을 중국 문화권의 언어 체계 속에서 이해 가능하게 재구성하려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특히 「陡斯」에 나타난 절대 존재 개념, 「化成」에 드러난 창조 개념, 그리고 「一性三位」에 나타난 삼위일체 설명은 서로 다른 세계관과 존재 이해 방식 사이에서 의미를 조정하고 재구성하는 번역 실천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논의는 AI 시대 인간 번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오늘날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 생성과 번역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인간의 번역은 단순한 정보 처리 과정이 아니라 역사·문화·세계관 및 실존 경험과 결합된 해석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陡斯」, 「化成」 및 「一性三位」의 번역 사례는 단순한 종교 용어의 번역이 아니라, 창조와 존재에 대한 이해를 중국어 문화권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시도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AI 시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I는 인간에 의해 설계되고 생성된 기술적 산물로서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언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신성경(古新聖經)』의 창조 이해에서 세계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인간이 수행하는 성경 번역은 단순한 정보 처리 행위를 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존재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신성경(古新聖經)』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 중개를 넘어 새로운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 가능하게

전달하려는 해석학적·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성경 번역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20:31)는 성경의 목적을 새로운 문화와 언어 속에서 전달하는 사명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의 『고신성경(古新聖經)』 번역은 단순한 언어 중개를 넘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한 해석자이자 증언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성경 번역이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생명의 말씀을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해 가능하게 전달하는 실천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생성형 AI가 성경 개념을 설명하고 언어를 생성할 수 있을지라도, 인간이 경험하는 믿음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실존적으로 살아내고 증언하는 차원까지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신앙 언어가 단순한 개념 전달을 넘어 인간의 체험과 증언의 차원을 포함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예를 들어 ‘구원’과 같은 개념은 단순한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회복, 삶의 변화와 결합된 실존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AI는 관련 개념을 설명하고 언어를 생성할 수 있을지라도, 인간처럼 삶의 경험 속에서 그 의미를 살아내고 증언하는 주체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존재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자신이 경험한 믿음의 의미를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전달하는 사명을 지닌다. 따라서 성경 번역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새로운 문화와 언어 속에서 이해 가능하게 전달하고 증언하는 해석학적·신학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인간 번역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고유한 해석과 증언의 사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에 나타난 복음 증언의 사명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끝—

<參考文獻>

- 賀清泰, 李爽學·鄭海娟 主編, 『古新聖經殘稿』, 中華書局, 2014.
- 王碩豐, 「賀清泰『古新聖經』研究」, 北京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王碩豐, 「早期漢語『聖經』對勘研究及其對中國文化的影響」,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7.